

하고 蓋邊側에도 忍冬文樣을 連續해서 細線으로 彫刻되었다. 發見當時의 蓋와 盒의 狀態는 平평이 뒤집혀져 盒口에 놓여 있었는데 三十度 傾斜져서 있었다. 그 盒內에는 別다른 遺物이 있지 않았으나 盒內 一部에 細麻布로 認定되는 布片이 붙어 있는데 삭아서 손을 摸 수가 없다. 上蓋下器의 凸帶圓圈들은 부어 鑿적에 型에 의한 造作 같으며 細線의 忍冬文들은 그릇이 된 後에 線刻한 것으로 推測되는 바 古拙한 品이며 純朴한 手法는 時代的으로 統一新羅以前의 遺品이라고 생각된다.

### 南式支石墓의 發生

金 元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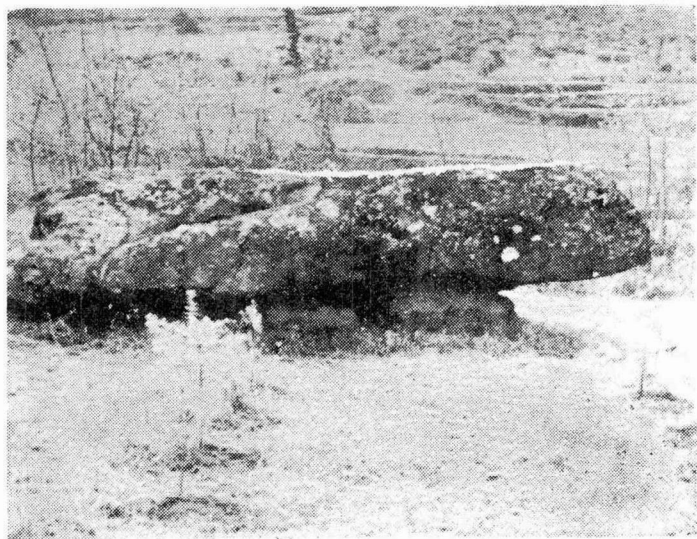
一

南方式支石墓가 北方式支石墓에서 變化해온 것임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며 이 境遇 南方式支石墓는 北方式支石墓의 地上에 있는 埋葬室이 地下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되고 樞本氏는 平南 美林里와 黃海道 砂金洞에서의 各一基씩의 地上에 上石만이 露出되어 있는 變形北方式支石墓를 北式에서 南式으로의 過渡期的形式이라고 보고 있다. (樞本 一九五三·八〇—八一) 樞本氏가 말하는 이 「地下에 營造된 支石墓」라는 것은 板石을 上石으로 하는 北方式支石墓인데 그 支石 四枚가 모두 地下에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樞本氏自身이 發掘한 것이 아니고 鳥居龍藏氏가 일찌기 調査한 것인데 鳥居氏의 原報告文을 보면 그것이 發掘된 것은 事實인데 그 흙이 元來부터 그렇게 묻혀 있었는지 또는 後天的으로 묻히게 되었는지는 分明히 알 수 없다 (鳥居 一九一六·八二三—八二四)。 그런데 設使 이것이 當初부터 그렇게 地下에 石室같은 것을 만들고 그 위에 地上에 露出되도록 上石을 덮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北方式支石墓에 封土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二形式이 있다는 證據로는 될지라도 그것을 곧 北式에서 南式으로의 移行樣式이라고 하기는

無理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南式支石墓는 埋葬主體가 地下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土塚이 아니면 石室、石棺이며 앞에서 본 것 같은 壁石이 땅에 파묻힌 것과는 全혀 構造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北式과 南式은 같은 支石墓로 불리우며 北式에서 南式이 變化해왔기는 하였지만 兩者는 根本構造에서 서로 判然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二

그런데 그렇게 根本的으로 「아이디아」가 다르면서 어떻게 北式에서 南式이 變化해왔는가——即 어떻게 兩者가 結合될 수 있는가라는 反問이 나올 것이다. 北式에서 南式이 생겨나온다는 것은 實은 外形에 있어서만의 偶然한 hint가 原因이 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北方式支石墓가 倒壞되면 그 外樣이 恰似 南方式支石墓와 같다. 寫眞에 보인 것은 龍仁郡內 石旺山里에 있는 三基의 北方式支石墓中の 하나인데 支石이 옆으로 넘어져 上石이 땅위에 바로 놓인 듯한 外觀이며 一見 南式支石墓와 다름이 없다. 나는 이러한 倒壞된 北式支石墓가 南式支石墓를 낳은 契機가 되었다고 보는 바이다. 即 地下에 死體를 埋葬하고 地上에



서와 같은 큰 대석을 낮은 땅에 둘러 피어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倒壞된 支石墓를 보았을때의 當時의 支石墓人들의 머리에서 떠올랐을 것이다. 이 境遇 既往부터 있던 獨立된 石箱墳 또는 土擴墓같은 것을 地下의 埋葬主體로 使用한다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렇게 地下에 石棺이나 土擴을 設備하고 地上에 支石墓로부터의 傳統이라고 할 수 있는 上石만을 놓는다면 勞力과 材料의 經濟는 두말할 것도 없고 過去부터 내려오던 固有의 支石墓를 完全히 拋棄해버리는 것도 되지 않는 妙案이 된다. 金海貝塚이나 日本의 北九州에서는 地下構造가 甕棺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南式支石墓에서는 地下埋葬主體로서 當時에 있던 獨立된 墓制를 採用하고 그 위에 支石墓의 殘滓라고 할 수 있는 上石을 놓는 것이 決코 北式支石墓의 石室이 漸次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리된 것은 아니다.

### 三

그렇기 때문에 南式支石墓의 誕生場所는 西北韓 卽 北式支石墓의 中心地에 있어야 한다. 樞本氏가 南式支石墓의 成立地를 中部韓國이라고 推測한 것은 不合理한 것이 分明하다(樞本一九五三·八四)。 왜냐하면 南式支石墓가 平南江西郡에서도 黃海道黃州郡에서도 北式支石墓群속에 群在하고 있는 것이 發見되었기 때문이다. (李一九五九·五二) 더구나 黃州것은 大邱支石墓式으로 一上石下多石櫛石이며 南式支石墓가 慶尙道全羅道에만 存在한다는 從來의 見解는 根本的으로 是正되어야 한다. 도리어 南式支石墓는 바로 西北韓에서 일어나 南쪽으로 퍼져간 것이다. 北韓에서는 南式支石墓의 上石은 모두 板石인데 南韓에서는 그 上石에 板石과 塊石의 두 形式이 있다. 이 境遇 樞本氏가 大邱의 經驗으로 보아 塊石 卽 立體石이 板石 卽 平石보다 從來의 樣式이라고 한 것은 매우 妥當한 說이며 南式支石墓의 上石이 北式支石墓의 上石을 繼承한 것이라면 板石이 塊狀石보다 先行하는 것임은 當然한 일이다. (樞本一九四八·二九六) 그 境遇 南式支石墓에서 조고만 塊石으로 上石을 피어 놓고 있는 것은 北式支石墓의 傳統을 이은 것이라 하겠으며 外樣은 다르나 그 아이디어는 같은 것이라 하겠다.

### 四

西北韓에서 南式支石墓가 出現은 하였지만 그 新案特許品이라고 할 수 있는 新墓制가 널리 流行을 못본 것을 생각하면 그 最初의 出現은 西北韓中心地에서 樂浪郡設置로 말미암아 支石墓社會가 變化하고 支石墓가 消滅하게 되어가는 時期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나는 그 時期를 西紀前二世紀初前後 卽 西紀前一〇〇年頃을 中心으로 한 時代가 아닌가 推測하는 바이다. 樞本氏의 南式支石墓의 中韓發生說을 따르는 三上氏는 南韓에서의 南式支石墓의 始作을 西紀前一世紀初頃으로 보고 있는데(三一·一九六一·二四五), 이러한 年代推測은 將次 더 確實한 資料의 出現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引用論著名

樞本龜次郎

一九四八 大邱大鳳町支石墓群について

考古學雜誌三八·二八六—三〇三

一九五三 朝鮮先史墳墓의 變化過程とその編年

考古學雜誌四三·一六七—一八九

鳥居龍藏

一九一六 平安南道 黃海道有史以前遺蹟

調査報告(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七六七—八五九

李進熙

一九五九 戰後朝鮮考古學의 發展

考古學雜誌 四五·四六一—四六四

三上次男

一九六一 滿鮮原始墳墓의 研究

東京, 吉川弘文館